

Koo Bohnchang 구본창

도쿄국제사진비엔날레(1999)





한국 현대 사진 예술의 발전에 크게 일조한 작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구본창은 도시, 인간, 자연에 걸쳐 한국 전통 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피사체들을 사진에 담아냄으로써 사진의 현대적 가능성을 끊임없이 실험해오고 있다. 그는 사진을 통해커다란 담론을 제시하거나 사회고발을 하기보다 자연에 대한 관조적인 탐구와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현대적 재해석을 선보인다. 1953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연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그는, 1985년 독일로 건너가 함부르크 국립 조형미술대학교에서 사진을 전공하고, 이후 꾸준히 사진작품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명동사진상(2000)과 강원다큐멘터리작가상(2003)을 수상하기도 한 그는 1999년에서 2001년까지 계원조형예술대학에서 사진전공으로 교수직을 역임했으며, 현재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1999년 도쿄사진비엔날레와 2010년 루앙프라방비엔날레에 참여하여 그의 진가를 인정받은 바 있다.

Koo Bohnchang is the photographer who has been instrumental in shaping and promoting contemporary Korean photography. Taking various objects such as, city, human, nature and Korean traditional mask in his frame, Koo has continued his experiment of the modern possibility of photography. He expresses his re-interpretation about Korean traditional culture and meditative consideration of nature, more than focuses on big issues or social problems. The photographer was born in Seoul, in 1953, and he earned his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from Yonsei University in Seoul. He continued his study in photography at Fach Hoch Schule in Hamburg, and began his career. Koo was awarded Lee Myoungdong Prize, Korea in 2000 and Gangwon Documentary Prize, Korea in 2003. He worked as a professor of Photography at Kaywon College in Anyang and currently works as a professor of Kyungil University of Photography&Video. Koo has showcased his works in internationally renowned photographic festivals like Tokyo International Photo-Biennale (1999), Biennale internationale de l'Image a LuangPrabang(2010).

(Breath 05) 1995 Gelatin silver print Image Size: 115×85cm Frame Size: 122×92cm